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 목 차

---

##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 .....	2
3. 시사점 .....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오   준   범   선   임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 ■ 개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상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

**(인지도)**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 43.2%,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56.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4차 산업혁명의 인지도는 서비스업 기업이 51.5%로 제조업 기업 40.9%에 비해서 다소 높은 모습이다. **(견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노동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핵심기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32.5%), '사물인터넷'(14.9%), '빅데이터'(1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설비에 높은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영향력)**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응답 기업의 속한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경영 전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응수준)**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7.1점으로 글로벌 기업의 10점 기준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이 생각하는 정부의 대응 수준도 선진국을 10점으로 했을 때 6.3점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으며, 서비스업 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통주력산업위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준비정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9%로 가장 높고 '준비하고 있다'는 26.7%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은 주로 신사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스마트공장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기업들이 바라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기업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꼽았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 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 '인적자본투자'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사점

대부분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적, 혁신적인 인재 육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1. 개요

-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인식 및 준비상태를 점검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요국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첨단제조업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업 2025’, 일본의 ‘일본산업부흥전략’, ‘산업 경쟁력강화법’ 등이 주요국의 산업정책임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
    - 새정부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과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상태를 조사·분석함
    -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17일~4월 25일까지며, 표본은 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중 400개 업체<sup>1)</sup>

### < 새정부의 산업 부문 주요 공약 및 내용 >

공약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플랫폼과 스마트 코리아 구현	-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 법·제도·정책 혁신 추진, 민·관협업체계 구축 - 혁신 창업국가로 조성 - ICT 기반 확충 및 생태계 조성 - 제약, 바이오, 스마트 카 등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규제 개선
제조업과 중소중견기업 육성	- 스마트 제조업 부흥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노동시장 및 교육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취업 형태 다양화 대비를 위해 노동존중 사회 기본 계획 수립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체제 수립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1) 응답 기업 특성은 <별첨> 참조.

##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

① (인지도) 국내 기업 중 약 43.3%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 기업이 제조업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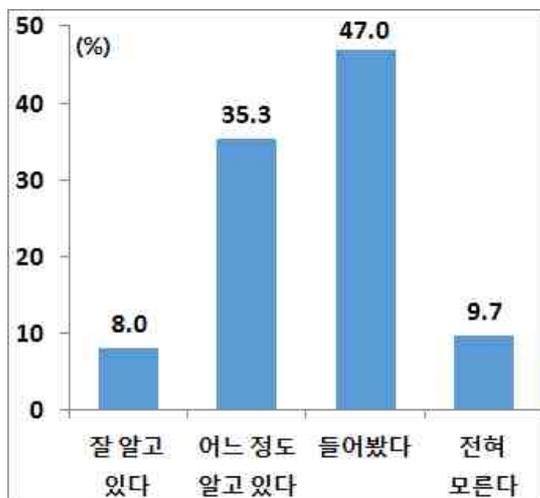
- (전체)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43.3%,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56.7% 수준

- “귀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의 8.0%만 ‘잘 알고 있다’, 35.3%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들어봤다’,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이 56.7%에 달하여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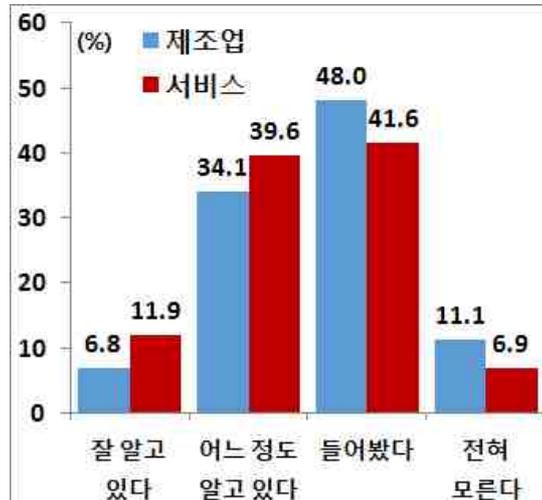
- (산업별) 산업별 4차 산업혁명의 인지도는 서비스업 기업이 제조업 기업에 비해서 다소 높은 모습

- 서비스업 기업의 51.5%가 4차 산업혁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제조업 기업은 40.9%만이 4차 산업혁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한편 서비스업 기업의 6.9%, 제조업 기업의 11.1%는 4차 산업혁명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인지도 개선이 요구됨

< 4차 산업혁명 인지도 : 전체기업 >



< 4차 산업혁명 인지도 : 산업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② (견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기대

- (전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노동시장 붕괴'를 우려

- 기업들의 응답 중 51.6%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이 19.1%의 응답을 보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기대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10.3%)보다는 '노동시장 붕괴'(13.6%)에 더 큰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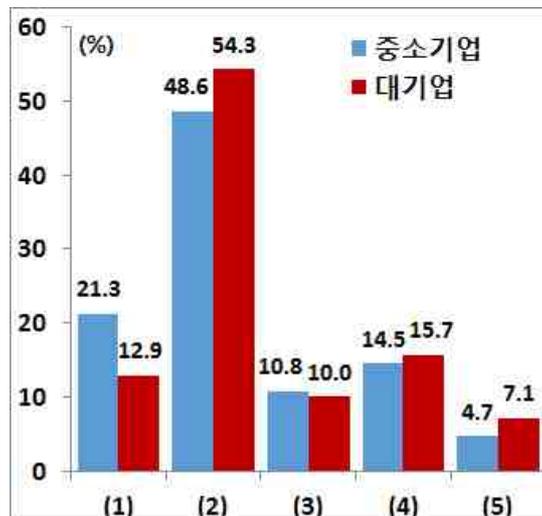
- (규모별)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음
- 한편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중소기업은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차 산업혁명 견해 : 전체기업 >

항목	응답비중(%)
(1)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	19.1
(2) 미래 성장 동력 창출	51.6
(3)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3
(4) 노동시장 붕괴	13.6
(5) 빈부격차 확산	5.3

< 4차 산업혁명 견해 : 규모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③ (핵심기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을 꼽았으며,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스마트팩토리', '로봇'에 더 높은 기대

- (전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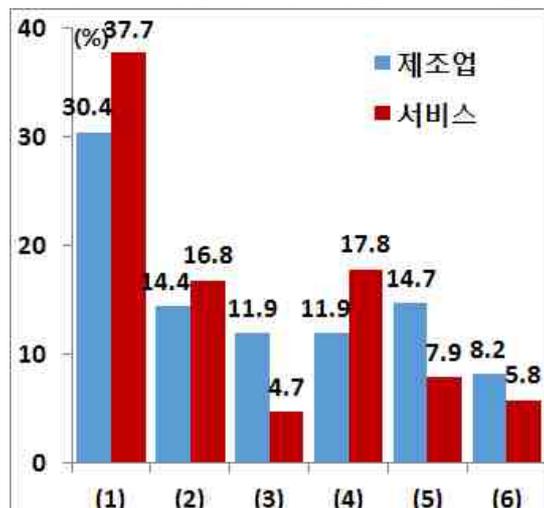
- 기업들의 응답 중 32.5%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사물인터넷'(14.9%), '빅데이터'(13.4%), '로봇'(12.8%)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산업별)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설비에 높은 기대를 하는 모습

-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응답함
- 한편 서비스업 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제조업 기업은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에 높은 기대를 보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 전체 >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 산업별 >

항목	응답비중(%)
(1) 인공지능	32.5
(2) 사물인터넷	14.9
(3) 스마트팩토리	9.8
(4) 빅데이터	13.4
(5) 로봇	12.8
(6) 3D프린팅	7.6
(7) 기타	9.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1) 2가지 중복응답 결과임.

주2) 기타에는 무인운송, 사이버보안, 생명공학, 사이버물리시스템, 신소재, 블록체인이 포함됨.

④ (영향력) 4차 산업혁명은 응답 기업이 속한 산업뿐만 아니라 응답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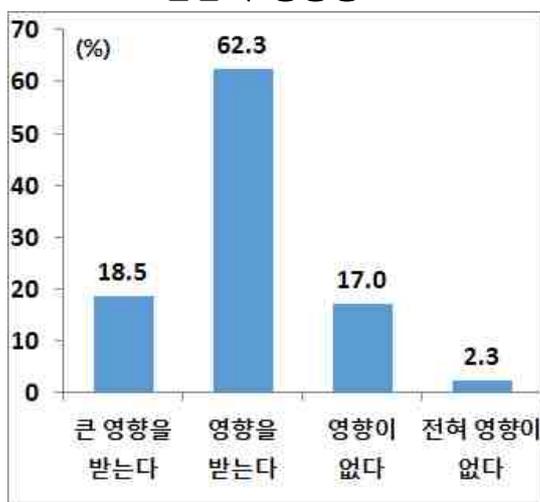
- (귀사가 속한 산업) 4차 산업혁명은 조사 기업이 해당되는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이 속한 산업에 '영향을 받는다'(62.3%), '큰 영향을 받는다'(18.5%)로 응답기업의 약 80%가 산업변화를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영향이 없다'(17.0%), '전혀 영향이 없다'(2.3%)는 약 20%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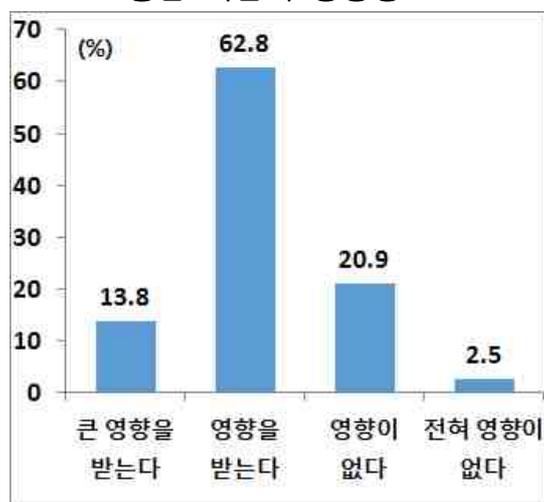
- (귀사의 경영 전반) 4차 산업혁명으로 응답 기업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이 '귀사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받는다'(62.8%), '큰 영향을 받는다'(13.8%)는 응답기업의 약 76%가 경영 전반의 변화를 예상
- 한편, '경영 전반에 영향이 없다'(20.9%), '전혀 영향이 없다'(2.5%)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산업의 영향정도 >



< 응답 기업의 영향정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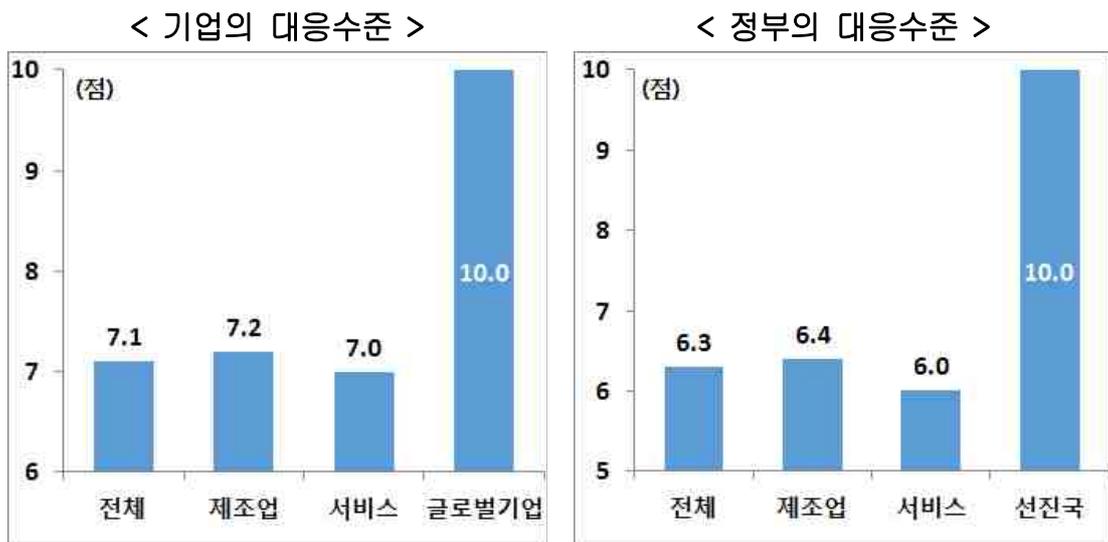
⑤ (대응수준)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기업)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조사

- 글로벌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을 10점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7.1점 수준으로 조사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7.2점, 서비스업이 7.0점으로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다소 높은 모습임

- (정부)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2)

-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을 10점으로 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6.3점 수준으로 조사됨
- 산업별로는 제조업 기업이 생각하는 정부의 대응 수준이 6.4점, 서비스업이 6.0점으로 제조업에 대한 정부 대응 수준이 다소 높은 모습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 설문조사의 조사기간이 새정부의 공약 발표와 대선 이전이었기 때문에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유의.

⑥ (대응수준 미흡이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으며, 서비스업 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통주력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이 높음

- (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 '전문인력 및 인재 부족', '4차 산업혁명 이해 부족' 등을 응답

-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이 22.3%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전문인력 및 인재 부족'(18.6%),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4%) 등이 뒤를 이었음
-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규제완화, 인프라구축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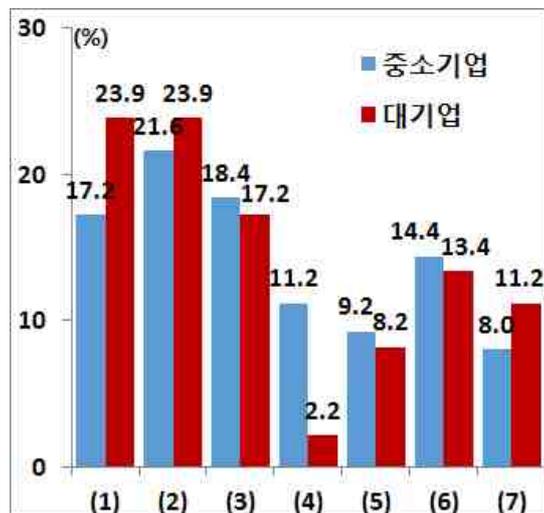
- (규모별) 기업 규모별로 4차 산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는 유사하나, 특히 중소기업은 '투자 자금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업 모두 4차 산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법적인프라 유연성 부족'이라고 응답함
- 한편 중소기업은 '투자 자금 부족'이 대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부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대응수준이 미흡한 이유 : 전체 >

항목	응답비중(%)
(1)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	18.4
(2) 과도한 규제 및 법적인프라 유연성 부족	22.3
(3) 전문인력 및 인재 부족	18.6
(4) 투자 자금 부족	9.3
(5) 수요창출의 불확실성	9.4
(6) 시대 뒤떨어진 교육시스템	13.8
(7) 전통주력산업위주 경제정책	8.2

< 대응수준이 미흡한 이유 : 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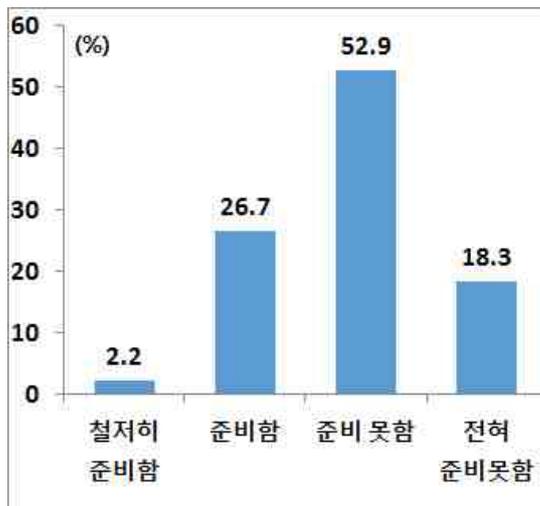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2가지 중복응답 결과임.

⑦ (준비 및 대응) 응답 기업의 약 70%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하는 기업은 '신사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9%로 가장 높고, '준비하고 있다'는 26.7%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임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귀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9%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 18.3%는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기업의 약 70%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
  -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2.2%), '준비하고 있다'(26.7%) 등 약 30%의 기업만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차 산업혁명 대응 방법)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기업들 중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사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도입'(33.8%), '신산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31.1%) 순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
  - 한편 대기업은 '전담조직 신설'(30.8%), '산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23.1%), '전문인력확보'(19.2%)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차 산업혁명의 준비정도 : 전체 > < 4차 산업혁명의 대응방법 : 규모별 >



항목	4차 산업혁명의 대응방법 : 규모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1) 전담조직 신설	13.3	8.1	30.8
(2) 스마트공장도입	28.6	33.8	11.5
(3) 신사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	29.5	31.1	23.1
(4) 전문인력확보	15.2	16.2	19.2
(5) ICT 및 신기술 투자 확대	5.7	2.7	11.5
(6) M&A, 기술 및 전략적 제휴	7.6	8.1	3.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대응방법은 준비 정도가 '철저히준비함', '준비함'인 기업들의 응답임.

⑧ (바라는 정부정책) 기업들이 바라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기업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꼽았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 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 '인적자본투자'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기업투자 관련 세제 혜택' 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기업 투자 관련 세제 혜택'(19.2%), '인적자본투자'(17.9%), '산업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17.0%) 순으로 응답자 비중이 높음
- (산업별)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기업투자 관련 세제 혜택', 서비스업은 '산업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기업 투자 관련 세제 혜택'(20.9%), '인적자본투자'(17.2%), '산업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14.8%) 순으로 응답자 비중이 높음
  - 한편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산업 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20.4%), '인적자본투자'(19.1%), '기업 투자 관련 세제 혜택'(16.6%) 순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이 바라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

(%)

항목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산업 규제 혁신 및 법률 정비	17.0	14.8	20.4
기업 투자 관련 세제 혜택	19.2	20.9	16.6
인적자본 투자	17.9	17.2	19.1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9.0	11.2	3.2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5.7	5.7	5.1
시장여건 조성	14.7	14.4	14.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2가지 중복응답 결과임.

### 3. 시사점

- 대부분의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시장여건 조성이 필요
- 과거 단일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융합을 가로막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후 감독 기능을 강화
- 또한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제도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적, 혁신적인 인재 육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 반복 학습과 암기식 교육으로 정해진 답을 찾는 교육 시스템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 중심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육성이 필요
- 정부의 평생학습 및 직업 교육, 기업의 근로자 교육훈련 확대를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
-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유연성 있는 직무 역량 강화 전략, 인재 활용을

위한 민-관 및 기업 간 파트너십 등이 필요

셋째,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향후 관련 시장 및 산업의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
-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제고해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함 **HRI**

정 민 연구 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오준범 선임 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 [별첨] 응답 기업 특성

(%)

응답기업 특성		비중	응답기업 특성		비중		
전체	400개 기업	100.0		5,000억 미만	87.2		
	농림,어업,광업	0.8		5,000억 ~ 1조 미만	6.1		
업종	제조업	음식료품,담배	2.8	매출액	1조 ~ 5조 미만	5.6	
		섬유, 의류 등	2.8		5조 ~ 10조 미만	0.8	
		목재, 가구 등	4.0		10조 이상	0.3	
		인쇄 및 복제업	1.3		자산 총액	5,000억 미만	80.7
		석유화학	1.3			5,000억 ~ 1조 미만	9.8
	화학 및 의약	10.8	1조 ~ 5조 미만	5.7			
	비금속 제조	15.3	5조 ~ 10조 미만	1.1			
	제조업	철강재 및 철강	6.3		10조 이상	2.7	
		서비스업	전자통신, 영상, 컴 퓨터	8.8	종업 원수	500명 미만	79.5
			기계, 정밀기기	11.8		500명~1,000명 미만	12.2
			자동차	4.3		1,000명~5,000명 미만	6.1
			조선	0.5		5,000명~10,000명 미만	2.0
	기타운송장비		0.3	10,000명 이상		0.3	
	유틸리티	0.3	귀사 존속 연수	5년 미만	5.1		
	건설업	4.0		5년~10년 미만	5.6		
서비스업	도소매업	4.8		10년~20년 미만	19.1		
	운수 및 창고	0.8		20년~30년 미만	13.3		
	숙박 및 음식	0.5		30년 이상	56.9		
	정보 통신업	1.8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5%미만	60.3		
	금융 및 부동산	3.3		25%~50%미만	17.0		
기술 서비스	1.5	50%~75%미만		17.7			
기타	12.8	75% 이상		5.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